

◆ 북미

- 미국 뉴욕주,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함정수사 실시
- 2008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완만한 성장 예상
- 대다수의 미국인들, 의무건강보험 지지

◆ 유럽

- Lloyd's, 경제학자들 2008년을 “불안정”으로 분석 규명
- RMS, 1998년 거대 폭풍우(Ice Storm) 피해 반복에 대한 경고

◆ 일본

- 니혼생명, 거치이율 2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
- 금융심의회, 미성년자의 보장 최고한도액 인하 결정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11년 만에 보험료 인하

◆ 중국

- 중국 정부, 연금보험 지급에 재정보조금 149억 위안 투입
- 2008년 중국 손해보험시장 전망
- 중국, 400억 위안 화물운송보험 시장쟁탈전 치열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뉴욕주,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함정수사 실시

- 뉴욕 Queens 지역의 검찰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불법 자동차 분해 공장(Chop Shop)을 직접 운영하는 함정수사를 한 결과, 경찰간부를 비롯한 공무원 등 61명을 체포했다고 밝힘.
 - 이번 함정수사는 자신의 자동차를 분해한 후 부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도난이나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 뉴욕시 경찰관인 Shantell McKinnies는 스포츠카가 도난당한 것으로 위장하여 26,000달러를 챙겼으며 이로 인해 절도죄, 문서위조죄, 보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경찰당국은 그녀를 징직처분 하였음.
 - 그 외에도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시립병원 경비책임자, 건물 관리인, 수금 담당부서 직원, 학교 경비 책임자, 국가안보국(Federal Homeland Security)직원 등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힘.

- 함정수사는 16개월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Chop Shop의 위치는 말할 수 없다고 Queens지방 검사 Richard A. Brown의 대변인은 밝힘.
 - 용의자들은 중개인들을 통해 입소문으로 Chop Shop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자동차를 중개인에게 넘기면 중개인이 Chop Shop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음.
 - 또한 검찰의 유인용 Chop Shop에 넘겨진 70여 대의 차량은 분해하지 않고 증거품으로 보관 중이라고 대변인은 밝힘.

(New York Times, 1/17)

□ 2008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완만한 성장 예상

- 미국 손해보험 산업 관계자들은 2008년 손해보험 산업이 낮은 보험료 성장세와 이익수준을 지속하여 한계성장(marginal growth)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전망은 최근 미국보험정보원(III) 주최로 뉴욕에서 개최된 손해보험산업 토론회 기간 중 최고경영자들의 일치된 견해였음.
 - Hartford사의 CEO인 Ramani Ayer는 기업성보험(commercial line)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토론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CEO 및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설문에 의하면 이들 중 3/4 가량은 기업성보험 및 가계성보험의 이익이 전년과 같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보험료의 감소는 지난 2년간 거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은데 따른 요율 인하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올해까지도 거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 Allstate사의 CEO인 Thomas J. Wilson은 자동차보험 또한 비슷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자동차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가격경쟁 외에 새로운 상품과 고객서비스 개발을 통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함.

- 몇몇 경영진들은 보험사의 M&A가 2008년에도 손해보험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 ACE사는 지난해 Combined사와 AON사의 일부 부문을 인수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M&A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Munich Re America의 CEO는 달러 약세로 인해 유럽 보험사들의 미국 보험사 인수가 용이해졌다고 언급함.
 - 그러나 이러한 M&A활동은 보험사의 수익을 낮출 수 있으며, 정부의 허가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작년의 경우 20%만이 인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Insurance Journal, 1/14)

□ 대다수의 미국인들, 의무건강보험 지지

- 올해 미국 대선후보 경선운동에서 건강보험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정부보조 방식의 의무건강보험을 68%의 미국인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됨.
 - 설문은 2007년 6월에서 12월 사이 미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3,50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음.
 - Commonwealth Fund에 의해 실시된 설문에 의하면 의무건강보험은 민주당원의 80%, 공화당원의 52%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68%에서 지지를 얻었음.
 - 의무건강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보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경쟁중인 각 당 예비후보들 간의 중요한 이슈임.
 - 현재 미국에서는 약 4,700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Commonwealth Fund의 부대표인 Sara Collins는 “해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중산층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함.
- Commonwealth Fund는 각 당의 유력 후보들이 모두 민간보험시장을 통한 건강보험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 공화당의 후보들은 의무건강보험에 찬성하지 않으나 민주당의 Hillary Clinton, John Edwards 후보는 전국민 의무건강보험을 지지하며, Barack Obama 후보는 어린이 의무건강보험을 찬성함.
 - 또한 Commonwealth Fund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들은 세제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에 있어 고용주의 역할을 줄이려 하는 반면 민주당 유력 후보들은 고용주들이 계속해서 건강보험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음.

(Reuters, 1/15)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Lloyd's, 경제학자들 2008년을 “불안정”으로 분석 규명

- Lloyd's와 유럽의 유력 경제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 경영인들 중 54%가 폭력과 테러리스트 활동으로 인한 기업리스크가 5년 내에 증가할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케냐와 파키스탄에서의 최근 폭력 사건들은 그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Lloyd's는 케냐가 12월 27일 치러진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으로 인한 폭동사태로 흔들리고 있으며 2008년에도 변동성이 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함.
 - 전체적으로 2007년은 아프리카 투자의 분수령이 된 한 해로 국제적으로 상반기 동안 약 5억 9천 2백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나,
 - 최근의 불확실성은 아프리카의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었던 케냐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Lloyd's의 언더라이터는 “만일 이러한 상황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케냐의 사업 환경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며 투자자들의 신용도 또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함.
 - 케냐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당분간 재산과 직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임.
 - 이러한 장기적인 폭력사태와 불안정성의 지속은 르완다, 브루나이, 이디오피아, 우간다, 콩고와 같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투자지역 확대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파키스탄에서는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인민당 총리가 27일 테러로 피살되면서 폭력사태가 일어났으며, 서방국가는 동 사태가 세계 정국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시민소요 등으로 번지지 않기를 기대

하며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함.

- 분석결과 기업경영인의 33%가 폭동, 시위 등의 사회적 불안을 기업운영의 가장 큰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다고 나타냄.
 - 재정적 측면에서 파키스탄 소요는 철도를 비롯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수억 달러의 피해를 유발하였고 이는 주식시장 폭락, 통화가치 하락에도 반영되었음.
 - 최근 강한 성장을 보여 온 파키스탄 경제는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컨설팅 회사 Eurasia의 관계자는 “폭력사태는 미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신흥시장에서 가장 큰 프론티어 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 Lloyd's는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국내 및 해외 사업체와 글로벌 안정성을 위한 최선의 합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Lloyd's는 파키스탄과 케냐에서의 사태 등으로 인해 테러리즘과 정치적 폭력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수요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림.
- 또한, 연구결과는 많은 기업경영인들이 아직 신흥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적극적인 리스크관리전략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체는 38%에 불과하며, 20%의 사업체가 민간부문의 리스크 및 안보 분석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반면 2/3는 국제 언론보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향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이 또한 많은 정치적 변동을 불러올 것이므로, 기업경영인들은 예측가능한 사태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하고 리스크 및 안보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Lloyd's, 1/7)

□ RMS, 1998년 거대 폭풍우(Ice Storm) 피해 반복에 대한 경고

- RMS(Risk Management Solutions)는 ‘The 1998 Ice Storm: 10-Year Retrospective’라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1998년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온타리오, 퀘벡 지방까지 강타한 같은 수준의 폭풍이 다시 발생할 경우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태풍이 현재 다시 발생한다면 총 보험손실규모는 10억~3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총 보험손실액 중 거대재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는 작은 규모인 반면,
 - 정전 등으로 인한 기업 및 산업 근간에 걸친 거대 기업휴지 손해 및 인프라의 붕괴, 주택의 냉해로 주택소유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시주거비 등 간접적 피해가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임.
- 1998년 1월 4일~10일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폭풍우는 freezing rain(결빙우)으로 뉴욕주에서 로렌스강 협곡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주었는데, 정전사태로 인한 파장이 크게 번졌고 45명이 사망하였으며 캐나다의 연안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음.
 - RMS는 동일지역에 유사수준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및 재물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 추가적인 주거비용 및 정전피해까지 예측할 때 1998년 보다 지역내 건물 밀집도가 높아져서 그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퀘벡의 전기발전시설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급 규모의 폭풍우는 심각한 정전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비상시를 위한 발전기나 무전 스토브 및 히터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함.
 - 1998년 폭풍의 발생 기간과 강도는 이례적이었으나 북미지역에서 겨울 폭풍의 발생빈도는 빈번한 사례로, 연간 누적 보험손실액이 2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밝혔음.

(Insurance Journal, 1/14)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니혼생명, 거치이율 2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

- 니혼(日本)생명보험은 지난 16일, 만기 도래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가입자가 필요할 때까지 생명보험사에 맡겨두는 '보험금 거치금'의 이율을 4월 2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함.
 - 이 같은 이율 인상은 최근 단기금리의 상승과 내년부터 있을 일시납 양로 보험의 만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 니혼생명이 보험금 거치이율을 인상하는 것은 1985년 10월에 동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처음임.
 - 이에 따라 4월 2일부터는 거치 기간에 따라 현재 연 0.01~0.1%의 거치이율이 연 0.5%로 인상되며 이는 대형 생명보험 중 최대 인상 수준임.

- 거치금은 거치 기간에 따라 이자가 붙는 등 은행의 보통예금과 유사하지만 보통예금과 달리 입금을 할 수는 없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1980년대 거품경제 이후 자산운용 난에 대비해 거치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산운용 환경 개선으로 인해 인상으로 전환하였음.
 - 니혼생명은 거치 금리의 인상과 동시에 사원 배당금 적립이율과 보험료 선납 할인 이율, 보험료 선납금 적립이율을 각각 현행의 연 0.1%에서 연 0.5%로 인상할 계획임.

(FujiSankei Business I, 1/17)

□ 금융심의회, 미성년자의 보장 최고한도액 인하 결정

- 일본 금융심의회(수상의 자문기관)의 ‘보험문제에 관한 작업부회’는 지난 16일 보험업법의 개정에 관한 보고안을 정리하였음.
 - 보고안은 생명보험의 ‘현물급부’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에 대한 보장액 최고 한도의 인하를 요구함.
 - 현물 급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대신 개호서비스나 양로원의 입주권 등을 직접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법제심의회가 작년 8월 허용 의사를 밝혔음.
 - 금융심의회에서는 현물급부가 허용될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가 크고, 장래 급부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보험료 산정도 곤란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 또한 선진국에서도 생명보험 현물 급부의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급부는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함.

- 본인의 동의 없이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하는 사망보험은 보험금 목적의 살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제심의회와 금융심의회 모두 ‘모럴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보장액의 최고 한도 인하를 요구함.
 -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은 개별적으로 천만엔에서 수천만엔 정도의 최고 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금융심의회는 최고한도의 인하와 함께 각 보험회사의 인수 입장에 대한 사내규정 정비, 사망보장을 제한한 신상품 개발 촉진 등도 보고안에 포함시켰음.

(산케이신문, 1/16)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11년 만에 보험료 인하

- 모든 자동차나 오토바이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자배책보험)의 보험료가 올해 4월부터 평균 24.1% 인하될 예정임.
 - 일본 금융청 장관의 자문기구인 자배책보험심의회는 지난 18일, 11년 만에 자배책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결정함.
 - 일본 언론은 3월말 정부 보조가 중단되는 일부 보험료를 제외하면 평균 22.2%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휘발유 가격의 상승 지속으로 일반 운전자나 운송회사 등 자동차 관련 업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자배책보험의 보험료 인하는 희소식으로 약 1,000억엔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손해율도 85.2%로 당초 전망치인 106.9%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고 이를 신속하게 보험료에 반영함으로써 계약자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계약자 평균 부담은 2년 계약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현재보다 8,360엔 인하된 2만 2,470엔으로 1967년 이후 가장 낮은 보험료 수준이 되며, 경자동차는 6,020엔 인하된 1만 8,980엔, 원동기형 자동차는 1,350엔 저렴한 8,790엔으로 각각 인하됨.
 - 손보업계에 의하면 보험요율의 검증은 자동차손배책임보험 심의회에서 매년 실시하지만 이번에 변경될 보험료 수준은 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하고 있음.

주요 차종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평균보험료

(단위 : 엔, 2년계약 기준)

차 종	현행	4월 이후
자가용 승용차	30,830	22,470
자가용 소형 화물차	25,940	19,290
경자동차	25,000	18,980
소형 이륜차	20,240	13,400
원동기형 자동차	10,140	8,790

(산케이신문, 1/18)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정부, 연금보험 지급에 재정보조금 149억 위안 투입

- 신화통신 1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전국 각지의 퇴직자들에게 춘절(春節, 음력 1월 1일로 우리나라의 설날에 해당) 전에 연금을 지급한다는 목표 하에,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 해에 비해 상당 폭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함.
- 재정부는 이미 쓰촨성(四川省)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동북 삼성의 옛공업기지, 그리고 신장(新疆)지역 생산건설병단 등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연금보험 명목으로 중앙재정(수입)에서 149억 위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역간·계층간 수입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금액 인상 폭도 과거 3년 동안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임.
 - 위 관계자는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적시에 충분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부는 금년 한 해 동안 모두 499억 위안을 연금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 전하면서, 재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지역과 경제적으로 약자인 퇴직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경제참고보, 1/17)

□ 2008년 중국 손해보험시장 전망

- 2008년 중국 보험시장은 개혁과 발전이 시장의 큰 흐름을 타고 강력한 수급 배경을 갖고 있는 손해보험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중소보험회사의 몸집 불리기와 연금보험회사의 기업연금 시장 적극 개척, 농촌보험시장의 진보 등이 주목될 것이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 보험시장의 전체 보험료 성장을 견인했던 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전망을 살펴보면, 2008년 손해보험시장은 견고한 수요와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시장의 보험가입대상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의 보험가입대상 규모는 사회 부(富)의 총량에 의해 결정되어 왔으므로, 비록 금년에 긴축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경제는 여전히 빠른 속도의 성장이 예측되므로 시장의 수요기반은 여전히 안정적일 것임.
- 공급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금년에는 금융기관의 금융종합그룹 발전과정에서 은행계 보험회사가 처음으로 탄생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중국생명(中國人壽)의 손해보험사 설립으로 다른 생명보험회사도 손해보험 영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셋째, 대형 국유기업이 속속 손해보험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전력망(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유사), 중국석유 등 전국성 기업 뿐만 아니라 대형 지방국유기업이 손해보험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또한, 지난 해 대형손보사 위주의 증자에 이어 금년은 중소형사들이 증자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보험보, 1/11)

□ 중국, 400억 위안 화물운송보험 시장쟁탈전 치열

- 중국 내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중국 내 외자보험 회사는 손해보험산업에서 화물운송보험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자보험회사들이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된 시점에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를 적극 활용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함.
 - 지난 2006년에는 외자보험회사들이 화물운송보험 시장에서 약 18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거수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음.
- 일부 전문가들은 화물운송보험 시장규모를 연간 400억 위안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중국 국내에 등록된 1만 여 개 물류회사들의 재고와 운송에 지출하는 비용이 매년 약 2조 위안에 달하고 있어 화물운송보험 시장규모를 물류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의 2% 정도로 추산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예측됨.
- 이처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화물운송보험의 시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해 몇몇 보험회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선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장선점에 나선 이들 대다수가 외자보험회사라는 점임.
-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2008년에도 역시 수출입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화물운송보험 시장전망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상당부분을 외자보험회사가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음.

(중국증권보, 1/11)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1.4(금)	08.1.11(금)	08.1.18(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83	5.52	5.36	-0.16
	美 10년국채	4.03	3.87	3.79	3.63	-0.16
	英 10년국채	4.51	4.41	4.42	4.44	+0.02
	日 10년국채	1.51	1.48	1.43	1.40	-0.03
주가	韓 KOSPI	1,897.13	1,863.90	1,782.27	1,734.72	-2.67%
	韓 KOSDAQ	704.23	719.25	699.24	666.32	-4.71%
	美 DJIA	13,264.82	12,800.18	12,606.30	12,099.30	-4.02%
	美 Nasdaq	2,652.28	2,504.65	2,439.94	2,340.02	-4.10%
	英 FTSE	6,456.90	6,348.50	6,202.00	5,944.40	-4.15%
	獨 DAX	8,067.32	7,808.69	7,717.95	7,401.63	-4.10%
	佛 CAC40	5,614.08	5,446.79	5,371.41	5,092.40	-5.19%
	日 Nikkei225	15,307.78	14,691.41	14,110.79	13,861.29	-1.77%
	中 상해종합	5,261.56	5,362.91	5,484.68	5,180.51	-5.55%
	대만 가권	8,506.28	8,221.10	8,029.31	8,184.65	+1.93%
	홍콩항셍	27,812.65	27,519.69	26,867.01	25,201.87	-6.20%
환율	원/달러	938.20	938.90	935.60	945.00	+9.40
	원/100엔	833.33	856.86	853.92	887.41	+33.49
	엔/달러	112.58	109.57	109.56	106.49	-3.07
	달러/유로	1.4722	1.4742	1.4797	1.4644	-0.0153
	위안/달러	7.3041	7.2729	7.2714	7.2486	-0.0228